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4727호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종합]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신한라이프 출범
'생보 빅4' 합류
03

Economy

코스피 3282.06 (-14.62)
코스닥 1035.64 (+5.68)
금리(국고채 3년) 1.469 (+0.021)
환율(원·달러) 1133.10 (+7.00) 〈1일〉

m-커버스토리

기업들의 '甲 중의 甲' 産銀 국책은행 설립 취지 잊었나

돈줄 쥔 산업은행

막대한 자금 바탕 영향력 확대
상생 아닌 자본시장 논리 초점
벼랑 끝에 선 기업 부담 가중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상생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금융계는 물론 산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HMM(옛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굵직한 기업의 대주주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산업은행 회장의 말 한마디에도 즉각 반응한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의 모습을 보면 기업과 상생보다 자본시장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 우리나라 산업은행…'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산업은행은 대출과 투자 그리고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중요 산업을 지원해 국가 경제발전을 돕기 위함이다. 결국 국민들의 고용문제와 한국기업의 기술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향후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

물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산업은행의 역할은 더욱 확대됐다. 2016년 국내 조선과 해운 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산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뒤흔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당시 매출채권으로 잡은 미청구 공사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분식회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당시 시중은행의 동반부실까지 불러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기업 여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고, 산업은행의 부담은 확대됐다. 이후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지원하며 기업에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은행의 고민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산업은행이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며 촌각을 다투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쌍용차 회생 찬물 끼얹는 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자구안을 내놓은 쌍용차 노사에 "그간의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구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온라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영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불공정·양극화 해결 시급 모두 잘 사는 세상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비대면 출마선언'으로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 영상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지사는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먼저 읽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관을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내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며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한국 경제에 '뉴노멀'로 자리 잡은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규제 합리화·인재 육성·인프라 확충·북방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공약인 보편 복지국가 토대로 꼽았다. 그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흙수저,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든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SK이노, 그린기업 전환… 脫탄소에 30兆

〈5년 간〉

'파이낸셜 스토리'
탄소→그린 중심 사업 전환
배터리·석유개발 분사 검토

SK이노베이션이 탄소에서 그린 중심 사업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바꾼다. 국내 최초 정유기업으로 출범한지 약 60년 만이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스토리 데이' 행사를 갖고, 이 같은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주축으로 그린(친환경) 사업을 통한 미래 전략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SK그룹의 경영전략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각 사의 성장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공감으로 총체적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ESG를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는 게 이번 행사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SK이노베이션은 탄소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그린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핵심 전략은 ▲배터리 중심 분리막, 폐배터리 리사이클 등 그린 포트폴리오 강화 ▲기존 사업을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제로인 '넷 제로' 조기 달성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사업의 주축인 배터리 사업의 분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현재 사업부 형태인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각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면서도 "배터리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분사 등을 지속해서 검토 중이다. 상장하게 된다면 나스닥 상장이나 국내 동시 상장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사가 이어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로서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전망이다. 김준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이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에 중점을 둬 그린 영역에서의 연구개발(R&D)과 새로운 사업개발, M&A 등을 통해 제2, 3의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경·언 유착' 뇌물사건 비화 조짐 … 공수처 수사하나
▲ 송영길 "尹, 정부에 저주 가까운 비판 … 日편에서 비난" /사진 뉴시스

▲ 수도권 '6명 모임' 새 거리두기, 다음주 결정키로
▲ 50인 미만 사업장서도 '주 52시간' 전면시행

▲ 원어민 강사발 '델타 변이'… 경기 영어학원으로도 번져 /사진 뉴시스
▲ mRNA 백신, 델타 변이 대응 강점… 기술 있으면 개발 신속